

불자 세상보기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일부 연예인의 인터넷 도박사건이 시중에 화제가 되고 있다. 연예인은 공인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규범적인 질책도 있고, 왜 연예인이 이러한 도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심리적 접근을 시도하는 내용도 있다. 또한 연예인이 많은 수입을 올리면서 인터넷 도박에 있는 저지 않은 돈에 대비한다는 경제적(?) 접근도 한다. 이와 함께 연예인의 도박사건을 이렇게 요란하게 터트린 것이 어떤 것을 은폐하기 위한 몰 타기 작전이 아닌가하는 정치적 시나리오를 펴기도 한다. 여하튼 연예인의 인터넷 도박사건을 두고 이렇게 요란한 것을 보니 우리사회가 과연 풍류 사회가 되었구나하는 생각

도박서 벗어나는 것이 부처에 이르는 길

이 든다. 소위 한류라는 것도 거의가 연예인이 일으키는 바람이 아니던가. 도박에 대하여 약간의 철학적 흥내를 내는 접근을 해 본다면, 인간은 도박적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의 도박성은 선천적이란 것이라는 주장은 수없이 많으며, 보틀레르는 인생에 있어서 참된 매력은 하나밖에 없으니 그것이 바로 도박의 매력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에 대한 경고는 즐기차게 나온다. 독일에는 도박을 악마의 일과로 보는 격언도 있다. 사는 자체가 도박 같은 생각이 들 때도 많다. 주식, 채권 등 각종 경제 행위도 일종의 도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도박이라는 용어를 남용 비난하는 것은 그렇게 쾌활한 일은 못된다. 안타까울 뿐이다. 삶의 여정 속에 어느 정도의 도박적 요소를 인정한다면 도박의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리라. 우리는 오늘날 사이버 공간에서 많은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

한 사이버 공간은 사람들에게 '익명성'이라는 '기계스의 반지'를 주고 있다. 플라톤의 '국가'에서 나오는 기계스의 반지는 반지를 낀 사람을 보이지 않게 하는 마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오늘날 익명성에 숨은 폭력성이나 부도덕성을 설명하는 상징어로 쓰고 있다. 근래의 많은 도박은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도박은 그만큼 유희성이 강하고 중독성도 높다 하겠다. 나는 도박의 독소를 해독하는 지혜로 세친의 <유식 30송>을 소개하고 싶다. 유식 30송은 꽤 난해하기로 소문나 있으나 흔히 불교 심리학의 보고로 평가되고 있다. 유식은 마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명하여 마음을 대변역시키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유식론의 제일 큰 특징은 '아뢰야식'이라 불리는 마음의 제일 밑에 있는 마음 층의 발견이다. 이것을 흔히 '저장식'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아득한 전생부터 쌓아온 모든 경륜의 종자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불교의 마음 수행의 최종 목표는 저장식에 기록되어 있는 테이프를 지우는 것이다. 저장식의 테이프를 지울 때 우리는 해방되는 것이다. 도박을 이야기하면서 유식론까지 거론한 것이 뜬금없이 느껴질지 모르나 필경 인간의 도박성은 아뢰야식에 있는 종자라고 생각한다. 아뢰야식의 기록을 관찰하면서 이를 지우는 길은 자아에 대한 그릇된 믿음에서 탈피하고,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줄이고 나아가 제거하는 것 이리라. 그리고 보니 도박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닌가. 도박의 독소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부처의 길이 아니던가. 도박으로 돈 따기를 기대하지 말고 도박으로 돈 잃지 않으면 그게 바로 수행의 길이리라. 도박이 불교를 망신시킨 기억이 새삼 아프다.

社說

중앙종회, 비판과 견제 기조 이어가길

조계종 중앙종회가 확실히 달라졌다. 서면으로 대체했던 중무보고도 맛있게 된 정책 질의가 없어졌다. 중앙종무기구의 허술한 관리를 짚어냈고, 잘못된 해명에는 매섭게 따져 물었다. 입법기구이면서 중앙종무기구의 견제적인 본래의 모습을 찾은 듯한 모습이다. 11월 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조계종 중앙종회 제196회 정기회는 제34대 총무원장 선거 이후 처음 열린 종회였기 때문에 운영 방식과 내용에 대해 이목이 집중됐다. 이번 종회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기존의 무기력했던 중무보고와 종책질의가 아닌 활발하고 날선 의원들의 종책질의였다. 총27개 질의가 올라왔으며, 이 중에는 당장 조계종에서 혁신시켜야 할 과제들도 상당 수였다. 대표적인 것이 주지 미임명 사찰 580곳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2400곳의 조

계종 등록 사찰 중 20%가량이 주지가 없다는 이야기다. 이는 종단의 허술한 관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점이다. 영당 스님은 공개 서면질의를 통해 자성 과쇄신결사추진본부?아름다운 동행?조계종 출판사의 부실한 예산 집행과 재정 관리에 대해 질의한 부분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이같은 지적은 종책질의가 아니고서 드러나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다. 인사안과 의사일정 변경 등 몇몇 사안에서 불교광장과 3자연대가 감정적 대립을 보인 것이 '옥의 티' 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판과 견제의 중심을 잘 지켰다는 평가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일시적인 선거 후유증으로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서운 비판을 할 수 있는 중앙종회가 되어야 한다. 이같은 긍정적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필리핀 돕기에 불교계가 적극 나서자

조강력 태풍 하이옌이 필리핀을 휩쓸었다. 지난해 필리핀 레이테 섬 타클로반 일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순간 최대풍속 지속 378km, KTX 고속 열차보다 빠른 태풍과 함께 몰아친 해일에는 견디낼 재간이 없었다. 천재 지변이다. 주택과 공항, 항만시설이 파괴되고 도시는 쓰레기 더미가 됐다. 무려 1만 2천 명이 넘는 사람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우리 교민도 10여 명이 연락두절 상태다. 의료용품과 생필품을 바다나고 부상자 구호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구원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필리핀은 현재 무간지옥의 상태다. 이럴 때 우리 불교계가 할 일은 부처님의 자비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동업종생의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동참하는 것이 불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조계종의 긴급재난구호봉사대 파견과 1억원 성금 지원 약속을 비롯해 천태종의 필리핀 피해주민을 돕기 위한 전국 자비실천 대법회 개최, (사)로터스월드의

피해지역 주민을 돕기 위한 모금활동 등 불교계의 활발한 자비 나눔 활동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훈훈함을 선사한다. 현재 불교계 전반에 걸쳐 이러한 나눔 모금은 확산되는 중이다. 필리핀은 6·25전쟁 때 사상군 7천 420 명을 파견,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무려 112명에 달하는 고귀한 생명을 희생한 특별한 이웃이다. 이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준 필리핀에 은혜를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보은의 나눔에 우리 불교계가 팔을 걷어 부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다는 점에서 이 사회에 큰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우리 불교계는 그동안 이 사회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동업종생의 마음으로 큰 힘이 되었다. 이번에도 이러한 자비행이 레이테 섬에서 발휘된다면 필리핀이 이번 시련을 이겨내고 재도약하는데 큰 용기를 얻고 씩씩하게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발언대 제2석굴암 조성 필요함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보도한 석굴암 균열 문제가 연일 이슈다. 문화재청은 전문가를 대동해 안전점검까지 실시했고 '이상 없음'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이 제2석굴암 조성 문제이다.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언제 노화될지 몰라, 제2석굴암 필요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

석굴암의 균열이 진행될 것은 오래됐다. 1970년대 때부터 이미 균열을 가 있었다. 석재, 특히 화강암은 그 구조로 인해 결국에는 부서지게 되었다. 언제 노화돼 석굴암이 무너질지 모르는 일이다. 제2의 석굴암을 만들려는 움직임은 박정희 대통령시대와 2000년대 들어 두 차례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석굴암의 영구성이 없기 때문이려나와 실질적인 신앙이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신도들이 석굴암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크다. 석굴암은 신앙의 상징이다. 사람들이 직접 신심을 느낄 수 있는 신앙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제2석굴암은 그러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제2석굴암을 만드는 것은 당대의 복원, 건축기술을 집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모형 석굴암 가당키나 한 일인가



범승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석굴암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사람들마다 다를 것이다. 미술가들은 어떤 숭고한 미적 경지에 압도될 것이고, 불자들은 한층 고양된 신앙심과 깊은 행복감에 젖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석굴암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이 있다. 어떻게 하면 석굴암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대서 '제2 석굴암'이란 복제품을 만들어 자신들의 지적으로 삼으려는 세력이다. 제2석굴암이라 하나 석굴암은 제1, 제2, 제3의 석굴암이 있을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모형의 복제품에 불과하다. 제1유물 최진설비를 도입하고 전자모형에 의한 복제라 해도 단지 모조일 뿐, 그것이 원형을 대체하지는 못한다. 그 옛날 1천3백 년 전, 석굴암 조성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불심과 정성을 모독하는 행위요, 나아가 이 나라의 불교사를 폄하하는 행위이다.

찬반

석굴암 복원 위해서 제2석굴암 건립하자



김중록  
소설가, 문화융성위원

제2석굴암 건립은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석굴암 복원을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하다. 이미 보존불 대좌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지금은 보존 차원에서 유리벽으로 '격리' 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일반인들이 문화재관람을 제한하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다. 석굴암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직접적 공간체현의 장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석굴암 복원의 실험장으로 제2석굴암을 활용할 수도 있다. 모든 문화재는 원형 보존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때 석굴암을 해체수리하는 과정에서 돌을 시멘트로 덧바르는 등 아間に 가까운 훼손이 일어났다. 제2석굴암 건립을 통해 석굴암의 원형복원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석굴암 건립 당시를 고스란히 느껴 봄으로써 생기는 종교적, 문화적 체험의 깊이는 단연 압도적일 것이다.

성보 의미는 유일, 보존에 더욱 신경을



강우방  
이화여대 명예교수

아무리 석굴암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더라도 다른 대안을 찾으려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성보문화재는 그 자체로 존귀한 것이다. 성보문화재를 복제하는 것은 그 존귀함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성보문화재는 문화재 의미 외에도 종교적 의미 또한 상당하다. 일각에서는 신형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석굴암을 인근에서만 보더라도 신앙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오히려 또 다른 석굴암을 만든다면 현재의 석굴암이 지닌 신앙적 의미가 퇴색될까 우려스럽다. 이번 석굴암 사태를 계기로 문화재청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불교계에서도 무사안일의 자세를 버리고, 소중한 성보문화재인 만큼 그 보존에 각별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b>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b>		
발행인 : 서해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회사홈페이지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연발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발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천축, 연축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형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여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중,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